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17-20

1865 년 6 월 19 일, 미국 **텍사스**의 작은 항구 도시 **갤버스턴**에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예로 일하던 수천 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처음으로 듣게된 소식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은 이미 2 년 전에 선포되었는데,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그들은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 연방 장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2 년 전부터 자유인이 되셨습니다!"
그날이 **'준틴스(Juneteenth)'**—미국의 자유 기념일로 제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느꼈을 감정을 한번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노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노예가 아니에요!"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했을껍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껍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사슬에 묶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껍니다.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중 하나일 뿐 아닌가요? 종교는 결국 다 비슷한 이야기 하는거 아닌가요? 달을 가리키는 여러 손가락들이 종교 아닌가요?
결국 종교라는게 '좋은 사람이 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을 얻을수 있다'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한 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과 침팬지**가 DNA 의 **99%**를 공유한다고 해서 그 둘이 같다고 말할수 없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차이는 불과 **1%** 밖에 되지 않지만 침팬지와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지요. 언어, 도덕성, 문명, 창의력 모두 인간이 비교할수도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기독교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결이 다른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쉽게 말하면, 다른 종교들은 행위가 기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복음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로마서 5 장 8 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히 선한 존재로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추악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고, 여전히 반항적이고, 자기 밖에 모르는 그 망나니와 같은 우리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말도 안되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중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우슈비츠라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한 죄수가 탈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로, 열 명의 죄수가 무작위로 선택되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 남자가 절규하며 외칩니다. "내 아내! 내 아이들!" 그 절규를 듣던 이들 가운데 **막시밀리안 콜베(Maximilian Kolbe)**라는 한 가톨릭 사제가 간수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그는 가족이 있지만, 저는 없습니다.” 간수들은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콜베는 죽음의 감방으로 들어갔고, 그 남자를 대신하여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이 곧 감옥에서 마치 전설처럼 퍼져나가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 사제가 보여준 용기를 다들 감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잊혀지지요. 사람들은 아마 각자의 바쁜 삶, 혹독한 삶 속에서 그 이야기가 저들의 마음에서 희미해져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겠지요.**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구원받은 그 남자**였습니다. 실제로 그 남자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군가가 저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제가 살아남을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직장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봅시다. “무엇이 당신의 삶의 원동력인가요?” “매일매일 당신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수용소에 있을 때 말입니다... 제가 죽을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때, 막시밀리안 콜베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저 대신 죽어주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분을 꼽겠습니다. 저를 위해 죽은 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에 이끌린 믿음**의 삶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도, 내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마음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 것도 복음인가? 내가 비록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복음 때문인가?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복음에 대해 마음이 식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복음을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이끌려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euangelion)"**이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 소식을 도시로 급히 달려가 외치는 전령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안으로 들어온 전령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휴대폰도, 인터넷도 없었지요. 전쟁에 이겼더라도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두 발로 뛰거나** 혹은 **말을 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로마서 10:15; 이사야 52:7)

따라서 복음이란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좋은 조언"의 차원이 아니겠지요. **복음은 세상을 뒤바꾸는 선포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꿀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마치 **준틴스(Juneteenth)** 때 자유의 소식을 처음 들은 노예들의 삶과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누군가가 자신 대신 죽어주었기에 매일매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히 살아가는 그 사람처럼**,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의 삶이 같을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예전같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마음 깊숙이 스며들면,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에 내가 아닙니다." "나의 과거, 수치, 죄책감은 이제 더이상**

나를 단정짓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17)

그렇기에 본질적으로, 복음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안에서부터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화해의 복음**"라고 설명합니다.
18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

여기서 '**화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탈라게(katallagē)**인데,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과의 온전하고 완전한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서로를 다시 받아들이고, 은혜로서 품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화해의 복음이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가는 **존 뉴턴(John Newton)**의 삶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존 뉴턴은 원래 **노예상**으로 알려져 있지요. 노예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가 사람과의 관계라 얼마나 깨져 있었는가, 얼마나 화해가 필요한 사람인가도 잘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악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의 삶, 그의 영혼 모두 온전한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죽을 뻔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죽음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후, 존 뉴턴은 목회자가 되었고, **노예 해방을 위해 싸우는 열정적인 폐지론자**가 되었습니다. 한 때 **노예로 이익을 취하던 자가**, 이제는 **그들을 자유롭게 하도록 애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능력 말입니다!**

그는 또한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유명한 찬송가도 썼지요. "**나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찬양이 지금도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할까요? 그것은 그 가사가 단순히 가삿말이 좋아서라기 보다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살아 있는 간증**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나의 삶의 고백**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금을 그렇게 울린다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그런 간증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죽었거나, 적어도 영적으로 여전히 방황하고 죽어있었을 것입니다.**"

행여나 오늘 이 자리에, 아직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혹은 그 복음의 감격과 능력이 희미해지신 분들이 계시다면—**오늘이 복음의 능력이 되살아나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찬양을 마음을 담아 올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 본문 18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19-20 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우리 자신만의 구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만족하며 즐겁고 편안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15 절 참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하시고, 그 화해의 말씀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믿었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화해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들어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연합군 병사가 **자유의 기쁜 소식**을 모른채 아직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살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자유의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ambassador)**란 누구일까요?
대사, 혹은 외교관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들은 **자신의 국가를 대표하여 그 나라의 입장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대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지요.
그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나라를 대신하거나 대표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왜냐면, 내가 보이는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보낸 자 혹은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책임과 의미를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은 자유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어 있던지, 그곳이 학교이든, 직장이든, 사무실이든, 심지어 집에 있든,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트 계산대 앞에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공원에서도, 줌(Zoom) 통화 중에도—내 **삶과 말**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신실한 대사가 누가 있는지 찾아보니 미국의 제 6 대 대통령을 지냈던 **존 퀸시 애덤스(John Quincy Adams)**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백악관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여러 나라에서 외교관(대사)으로 섬긴 경력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14 세의 어린 나이**에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 사절단의 비서로 임명되면서 외교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네덜란드, 프로이센, 러시아, 영국 등에서 외교관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무려 **14,000 페이지에 달하는 일기**를 쓴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는 모든 일기에 시작을 거의 항상 **성경 말씀이나 찬송가 구절, 혹은 짧은 기도문**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일기 중 하나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서명하는 모든 조약 위에 주님의 나라의 도장이 찍히게 하소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게 하소서**."

이것을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는 존 퀸스 아담스가 자신이 미국 대사이기 이전에, 혹은 정치인이기 전에,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기 이전에, **자신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자기가 단지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였다고 말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들은 이야기인데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초창기에 사역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웠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머뭇거리고,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창피함을 느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깨달음이 그의 모든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잠깐만—내가 단순히 보잘것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단순히 세상에서 무시받을 존재가 아니지. 나는 만왕의 왕의 대사니까 말야!**"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들이구나. 그들이 이 소식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야. 왜냐하면 나는 **만왕의 왕의 메시지**, **왕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전하러 가는 사람**이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격려가 되었습니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이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저하지 맙시다. **담대하게, 신실하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잊지 맙시다—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요. 마치 갤버스턴의 노예들처럼, **이미 자유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다보면, 쉽지 않은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이나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것을 너희에게도 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18–20)

그러니 이제 **우리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지 않았던가요?**
그 사랑에 붙들려, 이끌려, 메달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기억합시다. 이 세상은 지금도 이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부르시며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담대함과 기쁨과 사랑으로** 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께서 맡기신 이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은 자유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내 주셔서, 가정과 학교, 일터와 열방 가운데 나아가 **모든 이가 이 복음을 듣게 하소서.**
특별히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또 이웃과 화해하게 되는 날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